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 문앞에

# 식품업계도 가세... 신선식품 '새벽배송' 판 커진다

**동원몰 합리적 가격 '밴드프레시' 돌코리아 신선과일 프리미엄 배송 앵거스락 '냉장육 전문' 캠퍼족 노력**



밴드프레시 /동원F&B

식품업계가 새벽배송을 도입하며 판 키우기에 나섰다. 1~2인 가구 증가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이에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주문하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015년 1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새벽배송 시장이 성장하면서 식품업계도 시장에 진출했다.

동원F&B가 운영하는 동원몰은 새벽배송 서비스 '밴드프레시'를 론칭했다. 밴드프레시는 전날 오후 5시까지 주문한 제품에 대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배송하는 새벽배송 서비스다. 수도권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3만원 이상 주문 건에 한해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품목은 '텐마크' 브랜드의 프리미엄 유제품들과 양반죽, 개성 왕만두 등 동원F&B 제품들을 비롯해 시리얼, 스프, 닭가슴살 등 간편한 아침 대용식 제품 등 200여 종의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됐다.

밴드프레시는 동원F&B의 자사 식품몰인 동원몰에 기반한 서비스로 동원F&B의 다양한 제품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동원F&B의 프리미엄

유제품 브랜드 '텐마크'의 유제품과 각종 식품들을 함께 배송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돌코리아는 자사의 수입과일 전문몰 '돌리버리'에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오전 9시까지 완료된 주문 건을 다음날 새벽 문앞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송해, 소비자가 신선한 과일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다. 이는 돌리버리사이트내 모든 제품 주문 시 제공되며, 4만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가 무료다.

프리미엄 미트숍 앵거스락도 새벽 신선 배송 서비스를 론칭했다. 전날 낮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집 앞으로 소고기를 배달해준다. 냉장차량으로 배송해 아침 7시 전에 집에서 냉동이 아닌 신선한 냉장육을 받아 볼 수 있어 캠핑을 떠나는 등 아침에 고기가 필요 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새벽신선배송'은 서울 인천 지역을 포함해 용인, 의정부 및 하남, 파주 등 경기 주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배송비는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다.

유통업계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마트는 새벽배송 서비스 '쓱배송 굿모닝'을 시행 중이다. 이마트몰을 통해 전날 오후 6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6~9시, 오전 7~10시 사이에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서초와 강남·용산·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새벽배송을 시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개별 점포를 자체 물류센터로 활용해 당일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온라인 프리미엄 푸드마켓 헬로네이처는 '부천 신선물류센터' 오픈하며 신선식품 등 하루에 약 1만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헬로네이처는 이번 '부천 신선물류센터' 오픈을 통해 새벽배송 효율성 개선 및 배송권역 확대는 물론

헬로네이처의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 받아온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보다 최상의 퀄리티로 고객에게 전할 수 있게 됐다.

마켓컬리는 전날 오후 11시 이전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에 배송하는 '샷배송'을 선보이고 있다. 3년 만에 회원수를 70만명으로 늘렸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식품업계에서 성장동력으로 새벽배송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현재 새벽배송이 신선식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마켓컬리



3·1운동 100주년 기념 '여성독립운동가' 우표  
우정사업본부가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여성독립운동가 우표를 오는 28일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 설탕·콜라 등 가공식품값 10% 상승

한국소비자원, 1월 판매가격 조사  
식용유·오렌지주스·맛살 등 하락

월과 비교한 결과, 설탕·된장·콜라·어묵·생수 등 18개 품목의 가격이 0.3%에서 11.0%까지 상승했다. 조미료 중 설탕(11.0%)·된장(9.8%), 음료 중 콜라(9.7%)·생수(6.8%), 곡물가공품 중 즉석밥(5.6%)·컵라면(3.4%) 등의 상승폭이 높았다.

콜라와 설탕, 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격이 1년 새 최대 10% 안팎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1월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중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콜라(6.0%)·된장(4.7%)·카레(1.4%) 등 14개였다. 특히 두 달 연속 하락했던 콜라가 1월 들어 다시 상승했으며, 된장은 10월 이후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오렌지주스(-4.5%)·햄(-2.7%)·국수(-2.4%) 등 13개로 상승한 품목 수 보다 적었다. 햄은 최근 3개월 연속 가격이 하락했다.

조사대상 30개 품목의 가격을 전년 동

한편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품목은 식용유(-6.1%)·오렌지주스(-5.3%)·맛살(-4.9%) 등 6개이며, -4.4%에서 -6.1%까지 하락했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평균 구매비용은 12만2686원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두부·시리얼은 전통시장, 국수·식용유는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했으며, 콜라·생수는 SSM, 어묵은 백화점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인용 기자

## 최저임금에 '근로자 임금수준' 고려될 듯

**노동부, 이번주 결정체계 발표**  
구간설정추·결정추 이원화 유력

정부가 이번 주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이번 주 중 브리핑을 통해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최종안에 담긴 내용은 현재 일원화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선정방법과 결정위원회 인원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법 등에 각각 2가지 대안 중 한 가지를 택해 최종안을 담을 예정이다.

구간설정위원회 될 전문가 9명의 선정 방법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순차적으로 상대방 추천자 각 3명씩을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2가지



지난 1월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안이 제시됐다.

결정위원회 인원수는 노사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는 안과 노사공 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하는 2가지 안 중 택일하게 된다. 구간설정위원 9명을 포함하면 1안은 총 3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2안은 총 24명의 위

원이 선임된다.

공익위원 선정 방식은 국회와 정부가 각각 3명, 4명을 추천해 7명의 공익위원을 구성하는 1안과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순차적으로 상대방 추천자 각 4명을 배제해 7명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2안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개편된다. 현재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산정했으나 개편안에는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고용수준과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추가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중노총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개악 사례로 꼽고 정부가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현대중공업-대우조선 M&A 초읽기

대우조선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편입 시 사회사의 '홀로서기'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노조 집행부는 18일 오전부터 오는 19일 오후 1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현대중공업의 회사 인수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회사의 인수 후보자로 현대중공업을 확정 지난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KDB산

업은행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합병으로 인한 인적 구조조정, 경남권 기자재 업체 타격, 지역경제 붕괴 등을 우려하며 동종업체 매각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자회사 처리 문제도 큰 관심사 중 하나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편입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든지 아니면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각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대한조선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67.71%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홀로서기'를 해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형 선박 건조를 전문으로 하는

현대중공업 계열사 현대미포조선과 사업영역이 겹치기 때문이다.

비록 자회사 처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벼랑목이 사라지면 대한조선은 향후 수주경쟁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대한조선은 현재 600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 이후 2009년 조선경기 침체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겪은 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위탁운영과 구조조정을 하면서 2015년 법정관리를 끝냈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매각이나 편입이냐를 두고 아직 내부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다"라며 "회사의 구체적인 방향은 3월 본계약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